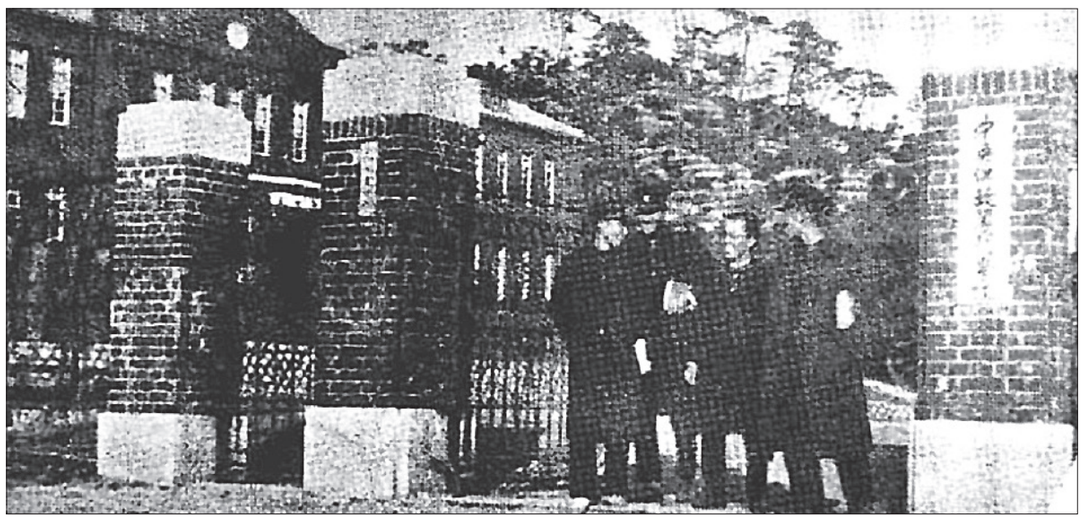
잊혀진 항일사, 연구로 되살리다

새롭게 발굴된 불교 항일운동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가 건립한 중앙학림 전경. 중앙학림과 지방학림 · 사찰이 연계된 불교계 만세운동이 최근 연구를 통해 조명됐다. 아래 사진은 조계종 불교사의 연구소가 2017년부터 내놓은 3.1운동 관련 연구 · 자료집.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관련 논문집 · 자료집 발간

기독교 주도 철원애국단
철원 도피안사서 결성돼
신상완 등 승려들도 참여

숨겨진 항일인사들 발굴돼
지방학림 만세운동 재조명

불교계의 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만해 한용운 · 백용성 · 백초월 등 명망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이 그간의 상황이다. 당시 불교의 종합적 상황이나 운동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나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지난 2017년부터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신문 · 잡지 · 판결문을 망라한 자료집과 종합적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집들을 발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제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수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발간한 연구논문집에는 새롭게 조명해야할 역사적 사실들과 인물들이 기록됐다.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철원애국단 사건과 불교계 항일운동' 을 발표하고 강원도 내 독립운동에서 불교계 인사가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를 살피고 있다.

철원애국단은 독립운동단체 중 규모나 활동 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제 역할을 수행했던 한국독립애국단의 지방조직으로 결성부터 활동까지 대부분 기독교인이 주도했다.

하지만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이 도피안사에서 결성하게 된 이유와 철원애국단 사건에 연루된 승려들의 행적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도피안사는 철원 지역의 대표 고찰로 일제의 감시를 피할 수 있던 곳이었다. 특히 도피안사 중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신도 강대용이 일정 수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경순 학예사는 "당시 지역 유지였던 강대용이 철원 지식인들이 참여하는 애국단 활동에 관심을 안 기울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국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거주지에서 멀지 않고 지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도피안사를 결성 장소로 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당시 주지 홍월운 스님의 묵인과 결단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경순 학예사는 철원애국단 사건과 관련된 불교 승려인 신상완, 김상헌의, 이석윤의 행적도 살폈다. 특히 신상완은 철원애국단이 10월 제2 만세시위를 계획 · 실행하는 데 직접적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이경순 학예사는 "신상완은 임시정부 내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국내외를 오가며 상해 임시정부의 지시를 국내에서 실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철원애국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해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헌과 이석윤 역시 3.1운동을 경험했고, 임시정부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수행했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숨겨졌던 항일인물들이 새롭게 조명된 것은 큰 성과이다.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첫 한국인 박사가 통도사 승려 출신 박민오(朴玟悟, 1897~1976)임을 밝혔다. 그는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로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황인규 교수에 따르면 박민오의 속명은 박노용으로 1897년 경남 남해 섬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1살 때 집을 나와 양산 통도사로 출가했으며, 6년간 통도사에 머물렀다. '민오(旻悟)'라는 법명도 이때 받았다.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이 서울 중앙학교(중앙중 · 고등학교 전신)를 인수해 교장을 맡고 있던 인촌 김성수에게 박민오를 추천해 입학하게 됐다.

서울 중앙학교 4학년 급장을 맡기도 한 박민오는 3.1운동 당시에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 독립선언서 배포와 민중동원에 나섰다. 3.1운동의 시작과 더불어 중앙학교 학생 등과 협력해 혁신단을 결성하고 '혁신공보'를 매일 발행해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데 매진했다. 1919년 9월에는 혁신단 특파원의 임무를 띠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때마침 국내에서 혁신단의 독립운동자금 모집 등이 탄로되면서 백초월, 백성욱 등이 체포됐고 박민오는 곧바로 수배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는 한동안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지만 그곳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1921년 뉴욕으로 건너갔다.

도미(渡美)한 박민오는 인쇄공, 행상, 접시 닦기로 일하면서도 에반스빌대학, 노스웨스턴대학을 거쳐 미네소타대학에서 학사학위를, 하버드대학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박민오는 〈중국인의 기회〉 등 저서를 잇달아 출간해 호평을 받았으며, 동양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리기도 했다.

김광식 교수는 해인사 주지를 지낸 이고경 스님이 만당 당원이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고경 스님은 해인사 주지 퇴임 이후 법보학원에서 민족교육을 하다가 1942년 12월 왜경에 체포됐고, 1943년 1월 고문 끝에 순국했다. 이런 업적으로 지난 2011년 이고경 스님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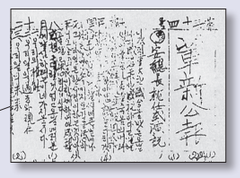
김광식 교수는 "고경 스님은 1920년대 전반기에 만해 한용운 스님을 만나고 그의 민족불교 노선을 따랐고, 1930년대 해인사에 복귀해서도 이런 노선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3.1운동 당시 이뤄진 해인사, 통도사, 표충사 등의 만세 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 것도 연구의 성과다. 특히 중앙학림과 지방학림, 사찰이 연계되는 만세운동의 정황을 확인한 것이 주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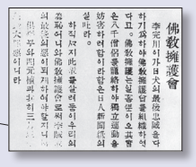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2회에 걸쳐 통도사 · 표충사 · 김룡사의 만세운동을 조명했다. 한상길 교수는 "불교계의 3.1운동은 청년 승려와 각 사찰의 학교인 지방학림과 보통학교 등의 학생들이 주축으로 참여했다"면서 "사찰은 만세운동을 기획하는 회합을 열기에 적합했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의 물품을 제작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용운과 유심사에 모여 만세운동을 기획했던 중앙학림 학생들은 대부분 각 사찰의 지방학림 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본적에 따라 지방으로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며 "불교계 3.1운동의 시작과 끝은 지방학림"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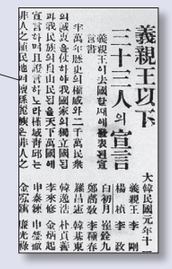
불교계 항일운동 주요 보도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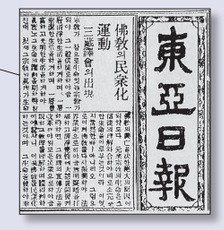
1919년 4월 3일 대구 승려 10명 만세운동(매일신보)
1919년 4월 14일 양산 통도사 만세운동 격화(매일신보)
1919년 4월 17일 불교청년들 '혁신공보' 창간
1919년 4월 22일 통도사서 시위 증거품 압수(매일신보)



1919년 7월 김용곡 스님 '경고법려' 기고(조선불교총보)
1919년 10월 7일 친일불교단체 '불교옹호회' 조직(독립신문)
1919년 11월 4일 한용운 스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독립신문)



1920년 1월 1일 의친왕 선언서 게재(독립신문)
1920년 3월 1일 대한승려연합회 불교선언서(독립신문)
1920년 4월 6일 임정 가담한 신상완 스님 체포(동아일보)
1920년 4월 10일 한성 불교강연회서 1,500명 만세 제창(독립신문)
1920년 6월 5일 밀양 표충사 인근 주민과 만세운동(독립신문)
1920년 9월 25일 한용운 공소공판기(동아일보)
1921년 4월 17일 해동불교청년회 군자금 모집 중 체포(동아일보)



1921년 8월 28일 불교 민중화운동 '삼장역회' 출현(동아일보)
1921년 12월 23일 한용운 스님 옥중 감상(동아일보)



1922년 4월 21일 '유신회' 일제 당국에 건백서 제출(동아일보)
1922년 4월 25일 유신회 '사찰령 폐지운동' 전개(동아일보)
1923년 7월 1일 양화사 신지찬 스님 체포 후 총살(독립신문)
1929년 3월 14일 민족해방 위한 불교 대계획 일본에 발각(중외일보)

일제 검속 · 친일조직 방해에도 '굳세어라!' 불교계 항일운동
당시 언론에 비친 불교계 항일운동

신문과 잡지는 당시의 시대상과 사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언론에 기록된 불교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지난 2017년 1년간 불교 3.1운동 및 항일운동과 관련된 신문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또한 민족사가 발간한 〈한국불교 100년〉의 사진 도판으로 실린 신문과 잡지 자료들도 당시 상황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당대 불교계 독립운동 기사를 통해 우리는 '3.1운동 발발 직후' 와 '통합 임정 출현' 을 기점으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교계 항일 움직임은 1919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싹텄다. 3.1운동 발발 직후 스님, 불자 등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만세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실제 매일신보 1919년 4월 3일 "대구 동화사서 포교소에서 승려 10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러 일제에 검거됐다"고 보도했으며, 4월 22일에는 "밀양 표충사 승려가 농민들을 선동해 시위운동을 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사찰서 시위운동과 관련된 유력 증거품 등이 발견돼 경찰에 압수된 사건이나 만세운동을 펼치다 단속에 잡혀간 스님들에 대한 소식이 신문에 다수 실렸다.

이는 최근 연구 · 주목받고 있는 지방학림 스님들의 만세 유도 활동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다.

반대로 친일불교세력들도 활동한 정황도 확인된다. 김용곡 스님이 조선불교 30본산 기관지인 '조선불교총보' 에 기고한 '경고법려' 가 대표적인 보도 사례다. 그는 기고문서 불자 청년들의 항일운동 가담을 반대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듬해엔 불교계 인사가 참여한 선언서들이 나왔다. 1920년 1월 1일 독립신문에 게재된 의친왕 선언서 명단에는 백초월 스님의 이름이 포함됐다. 그해 3월 1일에는 대한승려연합회 명의로 작성된 불교선언서가 독립신문에 게재됐다. 일명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는 1919년 11월 상하이에서 작성 · 발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해 파리강화회의 참석하는 세계 각국 외교관에게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당대 언론은 민족대표 33인 만해 한용운 · 백용성 스님이 수감 중과 출옥 후 보인 행보도 집중 조명했다.

동아일보는 1921년 8월 28일자 사설서 백용성 스님의 역경사업 조직체인 '삼장역회' 출범 의의를 보도했다. 스님은 삼장역회를 바탕으로 최초로 역경한 순한글 금강경 〈신역대장경〉 등을 펴낸다. 1921년 12월 23일, 동아일보는 한용운 스님이 출옥한 당시 모습과 발언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스님이 밝힌 "지옥에서 극락을 구하라"는 감상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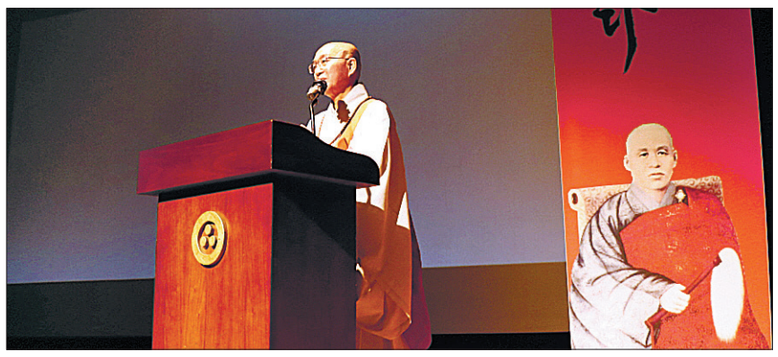
일본 당국의 탄압은 점점 심해졌지만 불교계는 항일운동의 조직 규모와 활동범위를 넓히는 일을 계속해나갔다. 군자금을 마련하다 적발돼 체포된 뒤 총살당한 신지찬 스님의 기사를 비롯해 식민지 불교정책에 반발한 '사찰령 폐지운동', 교계가 합심해 민족해방을 위한 대규모 계획을 세웠지만 발각돼 실현하지 못한 사건 등을 기록한 기사들은 이를 짐작케 한다.

김지원 기자

"'民'의 나라… 대한민국 수립" 발원한 용성 스님

구술사로 본 용성 스님 일대기
법륜 스님, 기념 토론회서 발제
도문 스님 구술 증언 바탕으로
용성 스님 항일운동 사실 밝혀

3.1운동 · 33인 등 논의 이끌어
출옥 후 임정 자금 지원활동
"종단 차원 관심 갖길 기대해"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독립운동가 백용성:잊혀진 100년의 진실' 을 주제 발제를 했다.

독립운동가이자 근대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이 3.1운동을 계획하고 '대한민국 수립' 을 처음으로 발원했다는 구술 증언들이 잇달아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백용성 스님이야말로 3.1운동과 항일운동의 숨은 주역이었다는 것이다.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간과할 수 없는 도문 스님의 구술

'독립운동가 백용성:잊혀진 100년의 진실' 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발제에서 법륜 스님은 그간 부각되지 못했던 백용성 스님의 항일 사실들을 풀어놓았다.

법륜 스님이 제기한 백용성 스님의 항일 사실들은 대부분 용성 스님의 법손인 도문 스님의 구술에 의한 것이다. 구술사의 객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나 피해 사실 등이 분명한 특정 사실들에 대해서는 구술도 상당한 신빙성을 가진다.

백용성 스님의 손상좌인 도문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후원자인 만석꾼 임동수의 증손자이기도 하다. 증조부, 조부부터 은사 등에게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일화를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3.1운동 계획… 숨겨진 주역

법륜 스님이 밝힌 백용성 스님의 항일 운동은 △3.1 운동 계획과 종교간 통합 △대한민국 수립 발원과 태극기 사용 △임정 등에 독립운동 자금 지원 △윤봉길 대한민국임정 파견 △만주에 독립운동 근거지인 용정 대각교당 농장 선농당 설립 △조 · 중 연합국 창설 구상(1만 의병 참여 총사령관 홍범도) △항일 불교운동 등 7가지다.

법륜 스님에 따르면 3.1운동 계획은 손병희 천도교 교주와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1910년 한일합방이후 백용성 스님은 '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적극 나설 것' 이라는 기대를 갖고 3정승, 6판서, 팔도감사, 360고을수령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외면했다. 도리어 항일 운동에 나선 것은 못 배우고 못 살던 민중들이었음을 확인하고 독립선언거사를 계획하게 됐다. 1918년 손병희 교주를 찾아 독립선언 거사를 논의하며 33천의 하느님이 우리를 보우하시어야 우리나라가 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제언했고, 손병희 교주는 이를 받아들였다.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도 이렇게 해서 인원 수가 정해진 것이다.

이 같은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의지는 대한제국의 부흥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립이 있었다는 게 법륜 스님의 설명이다.

법륜 스님은 "나라의 관리들은 독립운동 참여를 외면하는데 민중들은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백용성 스님은 전국을 유랑하며 확인했고, 이제 '민(民)의 시대' 가 왔음을 알았던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서 3.1운동에 동참한 민족대표들에게도 대한민국 수립운동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는 상해 임시정부에 이어지고 현재 대한민국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륜 스님은 백용성 스님의 독립운동 지원 사실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백용성 스님은 후원자이자 동지인 임동수와 함께 금광업, 인삼무역, 농장 운영 등의 사업을 한다. 이중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백용성 스님이 출옥 후 1년 뒤인 1922년 만주 명월촌과 봉녕촌에 각각 210만평 부지의 과수 농장을 설립한 것이다. 1927년에는 중국 만주 용정에도 대각교당을 세웠다.

법륜 스님은 "1921년 자유시참변으로 궤멸된 독립군과 그의 가족들에게 터전이 필요했다"면서 "백용성 스님은 농장을 건립해서 유랑하는 동포들이 머물 수 있게 만들었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생계 지원과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